

“的”자 구조¹⁾중에 있는 “的”의 공시문법화²⁾ 연구

李 惠 貞*

<目 次>

I. 서론	III. 문법화 메커니즘
II. 공시평면상에 나타난 “的”의 발전과정	IV. 문법화에 의한 통사적 변화
	V. 결론

I. 서론

朱德熙(1978)가 《“的”字结构和判断句》를 발표한 이래로 어법학계에서는 “的”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 경북대학교 강사

- 1) 본고에서 말하는 “的”자 구조란 단지 술어부분에 “的”가 놓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NP+是+VP的”중의 ‘VP的’를 가리킨다. 현대한어 중에는 “反对的是小王”, “教我英语的是李老师”같이 “VP的+是+NP”속의 ‘VP的’도 존재하지만 본고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시킨다.
- 2) 이전에는 ‘문법화’라 하면 일반적으로 통시문법화(历时语法化)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통시평면에서 어떤 어법형식의 근원, 형성 및 발전 과정 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문법화 이론은 통시(历时)평면뿐만 아니라 공시(共时)평면에서도 언어의 교체 및 변이가 존재하고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해외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공시평면에서 문법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공시문법화는 주로 공시언어의 변이(变异)현상에 치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문법화 상관변수나 기준을 활용해 공시평면상에 나타나는 어휘나 구조들이 가지는 상이한 기능 사이의 문법화정도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범주성이 높은 전형적인 용법에서 범주성이 낮은 비전형적인 용법 순으로 연속선(continuum连续统)을 도출한 뒤 각 변이들 사이의 문법화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 연구내용이다.(陈静 2006 참고)

간략하게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90년대까지는 “的”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주로 “的”를 포함한 “的”자 구조를 판단문(“是”자문)을 구성하는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朱德熙(1978, 1982), 徐静菡(1984), 杨石泉(1997)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특히, 朱德熙는 《“的”字结构和判断句》에서 현대한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的”자 구조의 배가(配价) 및 변환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的”자 구조는 판단문을 구성하는 문장성분에 속하고 그 중 “的”는 여전히 구조조사(结构助词)로서 명사화표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두 번째 견해는 통사, 의미, 화용 등 여러 층위에서 살펴볼 때, “的”자 구조에 나타나는 상당부분의 “的”는 구조조사와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설령 “是”와 같이 출현하더라도 더 이상 판단문을 구성하는 문장성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宋玉柱(1981), 马学良·史有为(1992), 李讷·安珊笛·张伯江(1998)등이다. 이들은 비록 “的”를 구조조사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的”가 문장 중 어떤 어법기능을 하는가에 있어서는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宋玉柱 및 马学良·史有为는 “的”를 已然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태표지(时态标记)로 정의했고, 李讷 등은 증거성표지(evidentiality-传信标记) 역할을 하는 어기조사로 정의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학자들은 “的”자 구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판단문에 출현하는 “的”가 구조조사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법기능을 가진 어법단위인지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한층 더 나아가 판단문에 출현하는 “的”의 기능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기능들이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비교적 영향력 있는 논문으로는 木村英树(2003)의 《“的”字句的句式语义及“的”字的功能扩展》과 袁毓林(2003)의 《从焦点理论看句尾“的”的句法语义功能》이다. 전자는 기능확장이론을 이용해 본래 사물구분기능을 하던 “的”가 그 의미기능이 확대되어 동작구분기능을 하는 “的”로 파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후자는 초점이론과 비단

조성(非单调性) 논리를 토대로 “的”를 다층위적으로 분석하여 명사화표지는 통사적 기능이고, 자기지시(自指)는 의미적 기능이며, 확인어기(确认语气)는 화용적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 단, 그는 사물구분기능을 가진 전형적인 구조조사 “的”은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어법학계는 현대한어에 존재하는 “的”자 구조중의 “的”는 구조조사와 더불어 또 다른 기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실, 현대한어에 나타나는 “的”의 다양한 기능은 일종의 공시적 변이(變異)현상이다. 문법화론이 이미 지적했듯이, 문법화과정을 겪은 모든 어휘나 구조들은 그들의 통시적 변화·발전(演變)과정이 공시평면에 일부 또는 모두가 반영된다. 현대한어에서 나타나는 “的”의 다기능현상도 바로 이런 것이다. 아쉽게도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的”의 다기능현상을 인지하긴 했지만 문법화관점에서 바라보지는 못했다. 그 결과, 비록 “的”자 구조에 포함된 “的”에 대한 이해도는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기능들을 모두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공시문법화 이론을 바탕으로 우선 현대한어라는 공시평면에 복수의 변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的”의 변이를 찾아내고, 이 변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변이과정과 문법화 메커니즘 및 각 변이사이의 통사적 변화를 고찰해서 “的”자 구조 중에 있는 “的”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 보고자 한다.

II. 공시평면상에 나타난 “的”의 발전과정

다음은 현대한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的”자 구조의 용례들이다.

- ① 我们的班主任张老师是教英语的。
(우리 담임선생님인 장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예요)

- ② 我嗑的瓜子都是托人从苏州买来的。
(내가 까서 먹는 씨는 모두 사람을 시켜 소주에서 사오게 한 거예요.)
- ③ 四爷的皮袍马褂都是新做的。
(넛째 도련님의 두루마기와 마고자는 모두 새로 지은 거예요.)
- ④ 我们是昨天来的。
(우리는 어제 온 거예요)
- ⑤ 我是吃小麦长高的。
(나는 밀을 먹고 키가 큰 거예요)
- ⑥ 那一夜我是在火车站度过的。
(그날 밤, 나는 기차역에서 밤을 보낸 걸요)
- ⑦ 阿眉胖了。是在她同餐桌一个老飞行员的督促下胖的。
(아眉가 살이 찼어요. 그녀와 같은 식탁을 사용하는 나이 지긋한 비행사의 독촉으로 찼 거예요)
- ⑧ 他们的心情是可以理解的。
(그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는 걸요)
- ⑨ 揭自己的疮疤是会疼的。
(자기의 아픈 곳을 끄집어내면 아플 거예요)

이상 나열된 용례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주어+是+X的”라는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문장 중에 있는 “的”의 의미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선 예①-③을 보자. 이들 문장에 있는 “的”는 전환지시(轉指)기능을 하는 “的”로서,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물에 어떤 속성으로 제한함으로써 구분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的” 뒤에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사물에 해당하는 유(類)개념의 명사를 다시 추가해도 의미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하면 말에 군더더기가 있어 언어의 경제성원칙에 위배되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 ①' 我们的班主任张老师是教英语的老师。
②' 我嗑的瓜子都是托人从苏州买来的瓜子。
③' 四爷的皮袍马褂都是新作的皮袍马褂。

예④와 ⑤중의 “的”는 전환지시라는 의미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 혹은 사건이 가지는 속성을 전달하는 자기지시(自指)기능도 가지고 있어 의미면에서 중의성을 가진다. “的”가 전환지시기능을 가질 때는 각각 “어제 온 사람”과 “밀을 먹고 키가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구분”의 의미가 부각된다. 따라서 “的”뒤에는 유(類)개념인 “人”을 추가하여 “我们是昨天来的人”과 “我是吃小麦长高的人”로 바꿔 쓸 수 있다. 반면에, “的”가 자기지시기능을 가질 때는, 그 의미가 각각 “어제 왔어요”와 “밀을 먹고 키가 컸어요”로, 여기서의 “的”는 단지 주어에 가지는 속성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므로 전환지시처럼 그 뒤에 유개념에 해당하는 “人”을 넣을 수 없다.

예⑥-⑨중의 “的”에는 전환지시기능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지시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주어에 대한 속성 또는 주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등을 진술할 뿐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的”뒤에는 유개념에 해당하는 명사성분이 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두 유형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기능상 차이를 가지는 “的”자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까?

사실, 이 문제는 문법화 이론으로 접근해보면 해답은 쉽게 나온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언어가 변화·발전할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첫째, Sapir(1921)가 일찍이 언급한 것으로 하나의 어휘가 문법화 되어갈 때 의미변화의 속도와 형태변화의 속도사이에는 불균형이 생긴다. 의미가 많이 변했음에도 형태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려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언어 속에는 의미연쇄에 의한 다의어 혹은 다기능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언어의 변화는 점진적이다. 문법화과정은 연속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하나의 어휘가 A의미(기능)에서 B의미(기능)로 변화할 때, 급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A의미(기능)와 B의미(기능)가 공존하는 중간단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沈家煊 1994) 예(1)에서 (9)에서 나타나는 기능상의 차이도 바로 이런 문법화가 지니는 특징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상기한 9개 용례에서 나타나는 “的”자 구조의 상이한 의미기능들은 일종의 “的”의 문법화과정을 보여주는 연속선(continuum 连续统)³⁾으로, 예①-③과 같이 판단문에 사용되던 구조조사 “的”가 예④, ⑤와 같은 중의성을 가지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예⑥, ⑦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증거성표지(evidentiality 传信标记)로 발전하였고, 이 증거성표지가 주관성을 가지게 되면서 예⑧, ⑨와 같이 현재 상황에 근거해 비현실적 사건에 대한 확신을 추론해내는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송재목(2009)에 따르면 증거성표지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건/상황에 대한 정보의 출처(information source)를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직접지식, 간접지식, 보고(report), 추론 등이 중심적인 개념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예⑧, ⑨과 같이 추론기능을 하는 “的”를 하나의 변이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주관화된 증거성표지로 보는 게 더 적합하겠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현대한 어라는 공시평면에서는 구조조사역할을 하는 “的”와 증거성표지역할을 하는 “的”라는 두 개의 변이가 함께 공존하고 동시에 그들의 중간단계도 여전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그들의 연속선을 도식화해보면 구조조사 “的” > 증거성표지 “的”이다. 앞으로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 두 변이를 각각 “的_구”, “的_증”으로 표기하겠다.

Ⅲ. 문법화 메커니즘

木村英树(2003)는 “的”의 기능상 차이를 의미기능의 확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구조조사 “的”가 가지고 있던 사물구분기능이 확

3) 연속선이란 연속변이(cline)와 같은 개념이지만, 연속변이가 통시적 측면에서의 변화·발전하는 단계를 나타내는데 비해 연속선은 문법화의 공시적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로, 공시평면상에 존재하는 변이들이 구성하는 하나의 연속체를 가리킨다.(Hopper & Traugott 1993 참조)

대되어 동작구분기능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 동작구분기능을 가지는 “的”가 포함된 문장의 전체의미는 이미 실현된 어떠한 동작을 그 동작과 관련 있는 참고항으로 구분함으로써 동작의 속성을 더욱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⁴⁾ 이 정의는 “小王在西单买的车” 등과 같이 이미 실현된 동작에 대해 진술한 “的”자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비교적 적합하다. 하지만 현대한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的”자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예⑩-⑫와 같이 시간개념상 已然과 관계가 없는 문장들은 특히 그러하다.

⑩ 从实用的观点看, 哲学是无用的。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철학은 무용한 거예요)

⑪ 他曾说过：“我对政治的态度是很正常的。”

(그는 이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정치를 대하는 태도는 아주 정상적이야”)

⑫ 经过三年修整以后, 这里园林的面貌是会有变化的。

(3년간의 정비를 거친 후에, 이곳 정원의 모습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的”자 구조 중에 있는 “的”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的_구”에서 “的_중”으로 전이되었을까?

원래 “的_구”는 “NP₁+是+X+的+NP₂”와 같은 구조에 쓰여 앞에 있는定语성분 X와 뒤에 놓인 중심어성분 NP₂를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구조조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에 해당하는 “NP₁”와 중심어 “NP₂”는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 종(種)개념과 유(類)개념의 관계이고 유개념인 “NP₂”는 언어의 경제성 원칙으로 인해 자주 탈락되어 “NP₁+是+X+的”라는 새로운 구조가 출현한다. 이 새로운 구조가 바로 “的”가 문법화 되는데 필수불가결한 통사환경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이 구조 속에서 인지적 변화를 일으켜 구조조사 “的”가 증거

4) “的”字句是以特定的已然行为动作作为对象, 用与该行为动作相关的参与项为标准加以区分性限制, 以认定其行为动作属性的句式。

성표지 “的”로 전이되게 된다. 이 때 인지적 변화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다. 바로 환유(轉喻)의 작용이다.

환유란 ‘어떤 방식으로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 그 연속성 있는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쓰는 수사법⁵⁾ 중의 하나’라고 정의한 바 있다.(Heine et al. 1991) 여기서 말하는 연속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a. 사회-물리적, 사회-문화적 경험상의 연속성
- b. 부분-전체 관계의 연속성
- c. 병치관계, 즉 발화상의 연속성(Traugott and König 1991)

이 중 문법화와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것은 발화상이 연속성이며, “的”가 구조조사에서 증거성 표지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메커니즘도 바로 이 형태의 환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래 전환지시를 나타내는 “的”가 포함된 “NP₁+是+X+的”에서 “X的”성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NP₁”를 “X”라는 기준으로 제한하여 다른 사물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담화과정에서 청자는 화용적 추론을 통해 “X的”가 담당하는 ‘구분기능’이 이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모종의 정보’와 심리적으로 인접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써 “的”는 자연스럽게 정보전달을 하는 증거성표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이렇게 발전된 “的”은 점점 더 주관화가 되면서 지금과 같이 已然의 사태를 서술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사건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기도 하는 광의적 관점에서의 증거성 표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문법화론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어휘나 구조가 문법화 될 때 인식적 변화와 형태적 변화 사이에 어느 것이 선행하는가에 대해 합일점을 찾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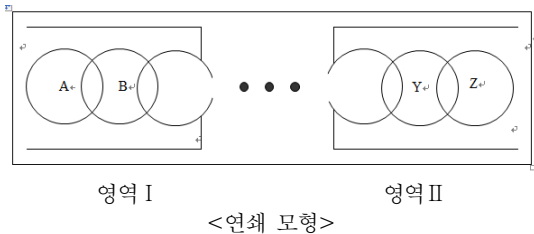
5)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는 환유(轉喻)는 어떤 특수한 수사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언어현상이다. 또한 단순한 언어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유와 행위방식이다. 우리의 사유와 행위가 의존하는 개념체제는 근본적으로 볼 때 환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Lakoff & Johnson 1980)

하고 있는데⁶⁾ “的”의 문법화과정에 근거해보면, 먼저 통사적 변화가 생겨 문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사환경이 주어지고, 그 다음 사람의 인지에 변화가 있는 후 의미적 변화가 동반되고 마지막으로 그에 상응하는 통사적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물론, 통사환경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는 통사의 변화가 다시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IV. 문법화에 의한 통사적 변화

판단문에서 구조조사 “的”가 증거성표지로 발진함에 따라 통사상에도 몇 가지 상응하는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변화는 경계가 명확하여 “的_구”가 A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的_능”은 반드시 -A라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문법화 자체가 복수의 변이사이에 분절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사상의 변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⁷⁾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변화들을 살펴봄으로써 통사

- 6) 문법화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상이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통사변화 후 의미변화 (Lightfoot 1989, 1991)
 둘째, 의미변화가 통사변화를 동반(Hopper & Traugott 1993, Bybee et al 1994)
 셋째, 인지·의미적 변화 후 통사변화 혹은 다른 변화들이 뒤따름(Heine et al 1991, Heine 1993) (이성하 2006 재인용)
- 7) Heine(1994)은 중복 및 연쇄모형에 따르면, 하나의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전이될 때 분절적인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개념이 공존하는 중간단계를 거치며, 이런 중복현상이 연쇄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난다고 하였다.



상의 변화경향을 알아보고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是”역할의 약화

“的₁”는 본래 “NP₁+是+X+的”과 같은 판단문에서 앞에 놓인 X와 함께 구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 문장중의 “是”는 중심동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략이 불가능하다.

⑬ 提到这只老虎, 它是一个和尚送的。

(이 호랑이로 말하자면, 그것은 한 스님이 선물한 거예요.)

⑭ ……民航航徽, 不锈钢小飞机饰物。都是阿眉遗留下的。

(민항 휘장, 스테인리스 모형비행기 액세서리. 이거 다 아메이(阿眉)가 유품으로 남긴 거예요.)

⑮ 我们公司您听说过吗? 是专门生产现代化办公设备的。

(우리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현대회사무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에요.)

예⑬-⑮중의 “的”는 전형적인 구조조사로서 앞에 출현하는 “是”는 생략할 수 없다. 만약 생략하면 문법상 틀린 문장이 된다.

이와 달리, 증거성 표지로 전이된 “的”를 포함한 “的”자 구조는 어떤 사물 혹은 상황을 구분하는 기능에서 정보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전이되면서 문장 중에 중심동사로 쓰이던 “是”의 역할도 점점 약화되어진다. 그래서 용례 중에는 예⑯, ⑰과 같이 “是”의 출현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⑱과 ⑲처럼 문법화가 더 진행된 “的”자 구조에서는 오히려 “是”의 출현이 부자연스러워지기도 한다.

⑯ 他不知道孩子是什么时候来到脚旁的。→ 他不知道孩子什么时候来到脚旁的。

- ⑮ “我是严格按照她的要求干的。” → “我严格按照她的要求干的。”
- ⑯ *8) 不那样我是会嫁不出去的。 → 不那样我会嫁不出去的。
- ⑰ * 本来我应该多关心关心你的, 瞎忙, 没顾上, 我是该向你检讨的。
→ 本来我应该多关心关心你的, 瞎忙, 没顾上, 我该向你检讨的。⁹⁾

이상의 서술을 통해 “的”가 문법화의 진행되면 될수록 판단문은 더 이상 반드시 필요한 통사환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부정형식의 변화

“的”를 포함한 문장에서는 중심동사가 “是”이며 “的”자 구조는 “是”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를 포함한 문장을 부정할 때는 예⑳, ㉑과 같이 중심동사 “是”를 부정형식 “不是”로 바꾸면 된다.

- ㉒ 那人根本不是你们厂的。
(그 사람은 절대로 당신네 공장 사람이 아니에요)
- ㉓ 我们不是来做客的。
(우리는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예㉒와 ㉓처럼 “不是~~, 是~~”구조를 이용해 문장을 부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기준으로 주어를 재구분하는 용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8) *표시는 비문을 나타낸다.

9) 瞌睡, 是会传染的。
他们知道, 毕业出去的学生, 日后多半是会把他们忘记的。
이상의 예들은 코퍼스(corpus)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예들로, 문장중의 “的”가 “的”임에도 불구하고 “是”와 함께 출현하다. 언뜻 보기에는 이 예들이 본문에서 문법화가 더 진행된 “的”는 “是”와 함께 출현했을 때 부자연스럽다는 설명의 반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是”가 판단문을 만드는 판단동사가 아니라 강조를 나타내는 어기부사라는 점을 확실히 한다면 본문내용과 위배되지 않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㉔ “这不是我说的，是小沈说的。”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심군이 말한 거예요)

㉕ 我不是写小说的，我是开饭馆儿的。

(나는 소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식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방법을 택하든 “的_ㄱ”를 포함한 문장을 부정하는 방법은 “是” 앞에 부정부사 “不”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的_ㄴ”자 구조를 포함한 문장은 통상적으로 모두 긍정형식으로만 쓰인다. 다만 알고자 하는 정보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예㉔-㉕처럼 “的_ㄴ”자 구조 자체에 부정부사가 포함된다.

㉔ 也许她对你的这种绵绵不休的感情是不健康的，不应该的。

㉕ “可是我在屠刀下是不回答问题的。”

㉖ 关于这一点，在当时是至关重要的，我们是不和没身份的人打交道的。

이처럼 부정형식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구분과 정보전달이라는 기능의 변화에서 기인했다. 즉 구분을 나타낼 때는 주어가 “的_ㄱ”자 구조에 의해 제한된 구분이 맞는지 아닌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是”와 “不是”라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대비개념을 가지지만, 정보전달은 오로지 ‘어떤 대상이 어떠한가’만을 집중적으로 서술하면 되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의 대비개념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라 “的”자 구조 자체에 부정부사의 포함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3. 부사의 위치변화

“的”자 구조에서 “的”가 “的_ㄱ”일 때, 부사의 위치는 중심동사인 “是”앞에 놓이는 게 일반적이다.

㉗ 这可是你说的。

(이건 당신이 말한 거예요)

㉘ 买了香肠不说, 还买回来一瓶“燕京”啤酒。这肯定是给小林买的。

(소시지를 산건 둘째 치고, 연징(“燕京”)맥주도 한 병 사가지고 왔어요.

이건 분명히 샤오린을 위해 산 거예요.)

예㉗와 ㉘를 보면 “的” 뒤에 각각 “话”, “啤酒”를 보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的”는 분명히 구조조사이고 전체 문장도 판단문이다. 따라서 어기부사(语气副词) “可”와 “肯定”은 모두 중심동사 “是”앞에서 그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만약 부사성분이 “的”자 구조인 “你说的”나 “给小林买的”앞에 놓이면 다음과 같이 비문이 된다.

㉗' *这是可你说的。

㉘' *买了香肠不说, 还买回来一瓶“燕京”啤酒。这是肯定给小林买的。

이와 대조적으로 “的”가 “的_중”일 때는 일부 어기부사(语气副词)가 “是”가 아닌 “的”자 구조와 직접적인 의미관계를 맺게 되고 그 배열순서는 예 ㉙-㉚와 같이 “是+어기부사+“的”자 구조”이다.

㉙ 不然的话, 他是肯定会成为这种人物的。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㉚ 他们知道, 每到我爷爷真发火的时候, 说惩治谁, 那是一定不会手软的。

(매번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서 누구를 처벌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절대로 사정을 봐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㉛ ...他其实挺想问朱启东是究竟怎么想的, ……

(사실 그는 쭈치이똥(朱启东)에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물어 보고 싶어 합니다.)

이는 첫째, “的_중”자 구조가 더 이상 전환지시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아니라 하나의 동사구이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직접 받을 수 있고, 둘째,

여기에 출현하는 “是”는 더 이상 판단동사가 아니라 강조를 나타내는 어기부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 지적할 것은 “是”와 상기된 “肯定”, “一定”, “究竟”은 모두 어기부사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兩者간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문법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㉘ 不然的话, 他肯定是要成为这种人物的。

㉙ 他们知道, 每到我爷爷真发火的时候, 说惩治谁, 那一定是不会手软的。

㉚ …他其实挺想问朱启东究竟是怎么想的, ……

4. 주부(主位)의 범위 확대

코퍼스상에 있는 용례들을 살펴보면, “的”자 구조와 함께 출현하는 주부(主位)가 “的”의 문법화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的”가 전형적인 구조조사일 때 “的”자 구조 뒤에는 유개념에 속하는 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주부(主位)는 그의 종개념에 속하는 명사성 성분이 담당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명사성 성분’란 일반명사뿐만 아니라 지시대명사 혹은 그를 포함한 명사구 및 인칭대명사 혹은 그를 포함한 명사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앞서 열거한 예①-③, 예②①-②③ 등이 이 단계에 속하는 전형적인 예들이다.

두 번째는 주부(主位)가 명사에서 동사범주로 확대되는 단계로, 여기에 출현하는 “的”는 여전히 구조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주어가 명사성이 아닌 동사성 성분 혹은 동사성 성분을 대신하는 这, 那가 담당하기 때문에 “的”자 구조 뒤에 생략된 명사가 첫 번째 단계보다 좀 더 추상화된 事情, 情况, 事实, 时候 등이다.

㉛ 你要叫我一时抛开她不想, 也是不可能的。

(당신이 나한테 그녀를 잠시 내버려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

것 역시 불가능한 거예요)

㉓ 穿长衫的私塾先生叫我念一段书时, 是我最高兴的。

(장삼을 입은 훈장선생님께서 나보고 책 한 단락을 읽어 보라고 하실 때 나는 제일 기뻐어요)

㉔ 她应该结婚了, 这是很自然的。

(그녀는 결혼했을 거예요. 이걸 아주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주부의 범위가 한층 더 일반화되는 단계로, 이는 “的”가 증거성 표지로 문법화 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특정한 사물에 대한 구분기능을 가지던 “的”가 정보전달 기능을 가지는 증거성 표지로 문법화 되면서 주부(主位)와 술부(述位)의 관계가 특정한 사물과 구분의 관계에서 화제(话题)와 설명(说明)의 관계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주부(主位)에 대한 제약이 약화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명사성 성분과 동사성 성분 외에 예㉓-㉔처럼 개사구 성분까지도 주부(主位)자리에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㉓ 类似的现象在使用拼音文字的语言中是少见的。

(유사한 현상이 병음문자를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는 적게 보여요.)

㉔ 写教材对评职称也是很有用的。

(교재를 쓰는 것은 직함 평정심사에 아주 유용해요.)

또한, 이처럼 주부(主位)와 술부(述位)가 화제와 설명의 관계로 전환되면서 “的”가 주관화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하여 화자주어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진다. 예㉓과 예㉔,㉕이 모두 화자주어가 두드러진 예이다.

㉕ 这种责任制是不可以轻易否定的。

(이런 책임제는 쉽게 부정될 수 없어요)

㉖ 或许, 她的怀疑是对的。

(아마도, 그녀의 짐작은 맞을 거예요.)

이는 Traugott(1982)가 ‘의미의 허화’란 일종의 주관화(主观化)현상으로, 문법화가 진행될수록 화자가 단순한 명제 혹은 외연위주의 의미에 자신의 관점을 투사함으로써 그 의미를 점점 주관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지적한 부분에 상당부분 일치한다.¹⁰⁾

V. 결 론

본고는 공시문법화(共时语法化) 관점에서 현대한어에 병존하고 있는 “的”자 구조 중 “的”의 변이 및 그들의 분화를 이끈 메커니즘을 고찰하고 그 변이들 사이의 통사상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래 판단문인 “NP₁+是+X+的+NP₂”구조에서 구조조사로 쓰이던 “的”가 뒤에 놓인 중심어 “NP₂”성분이 자주 탈락되면서 “NP₁+是+X+的”라는 새로운 통사환경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뀐 통사환경 속에서 “的”에 대한 인지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때 가장 큰 작용을 한 인지적 메커니즘이 환유이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구조조사에서 증거성표지로 전이된 “的”는 다시 주관화를 거쳐 정보의 직접전달이라는 기본 의미기능을 뛰어넘어 추론기능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와 같은 문법화과정을 거친 “的”에게는 판단문이 더 이상 필수불가결한 통사환경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 문장 중 “是”역할의 약화 및 부정형식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또 일부부사, 특히 어기부사의 위치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외에도, “的”가 문법화를 거치면서 그를 포함한 문장들의 주부(主位)에도 변화가 생겨, 원래 명사나 명사구만이 출현했던 주부에 동사구 심지어는 개사구까지도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표현상에 있어서도 단순한 명제개념에서 화용적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화자주어의 역할이

10) “在虚化过程中语义的演变, 往往是某一功能 / 语义, 在上文的影响下, 由命题 (propositional)的功能, 变成语言表现上(expressive)的功能。”(吴福祥. 汉语语法化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2005:20-21에서 재인용)

커지게 되었다.

언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로서 그들의 변화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시평면에는 복수의 변이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시적 문법화 관점을 도입하여 어떤 어휘나 구조의 문법화현상을 고찰한다면 그들의 본질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현대한어에서 왜 복수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력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본고가 “的”자 구조 중에 있는 “的”의 공시문법화를 연구하면서 도달하고자 했던 연구목표이다.

<References>

1. CHEN Jing. “Diachrony and Synchrony in the Study of Chinese Characters' Grammaticalization”. *Journal of Fuqing Branch of Fujian Normal University* 6, (2006): 10–13.
2. Heine et al. *Grammaticalization :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3. Lee, Seong Ha. *Understanding Grammaticalization*. Seoul : Hankook munhwasa, 2006.
4. Mu Cun Ying Shu. “The syntactic meaning of sentence pattern of “de” and the function expansion of “de”.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4, (2003): 303–314.
5. Ni, Ne, An, Shan Di, Zhang, Bo Jiang. “The Argument of Modal Particle ‘de’ from the Perspective of Discourse”.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2, (1998): 93–102.
6. Qi, Hu Yang, Zhang, Qiu Hang. “A Review of Researches on ‘Shi ……de’Sentence”. *Journal of Radio & Tv University(Philosophy*

- & *Social Sciences*) 4, (2005): 37–40.
7. Shen, Jia xuan. “A survey of studies on Grammaticalization”.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4, (1994): 17–24.
 8. _____. “A survey of studies on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4, (2001): 268–275.
 9. _____. “Pragmatic Principles, Pragmatic Inference, Semantic Change”.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4, (2004): 243–251.
 10. Wu Fu Xiang. *A study of grammaticalization in Chinese*. Beijing : commercial press, 2005.
 11. Shi, You Wei, Ma, Xue Liang. “A Discussion on ‘Nar Shang de’ and ‘de’”. *Studies in Language and Linguistics* 1, (1982): 60–70.
 12. Shi, You Wei. “A Re–discussion on “de” of Expressing Accomplished State of Affairs”. *Studies in Language and Linguistics* 1, (1984): 249–255.
 13. Song, Jae Mog. “Epistemic Modality and Evidentiality”. *The Associations for Korean Linguistics* 44, (2009): 27–53.
 14. Song, Yu Zhu. “About Time Particle ‘de’ and ‘laizhe’”.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4, (1981): 93–102.
 15. Yuan, Yu Lin. “The Study of Syntactic and Semantic Functions of ‘de’ in the End of a Sentence from Focus Theory”.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1, (2003): 3–16.
 16. Zhu, De Xi. “the structure of word ‘de’ and Judgement Sentences”.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1, 2, (1978). In *ZhuDeXi WenJi* (2). Beijing : commercial press, 1999: 205–230.
 17. _____. *Grammar Notes*. Beijing : commercial press, 1982.

<참고문헌>

1. 陈静, <汉语语法化研究中的历时和共时>, 《福建论坛:人文社会科学版》第6期, 2006.0.
2. 海涅、克劳迪, 许涅麦尔, 《语法化:概念框架》, 芝加哥大学出版社, 1991.
3. 李成河, 《了解语法化》, 韩国文化社, 2001.
4. 木村英树, <“的”字句的句式语义及“的”字的功能扩展>, 《中国语文》第4期, 2003.0.
5. 李讷, 安珊笛, 张伯江, <从话语角度论证语气词“的”>, 《中国语文》第2期, 1998.0.
6. 齐沪扬, 张秋杭, <“是……的”句研究述评>, 《广播电视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4期, 2005.00.
7. 沈家煊, <“语法化”研究综观>, 《外语教学与研究》第4期, 1994.0.
8. _____, <语言的“主观性”和“主观化”>, 《外语教学与研究》第4期, 2001.0.
9. _____, <语用原则、语用推理和语义演变>, 《外语教学与研究》第4期, 2004.0.
10. 吴福祥, 《汉语语法化研究》, 商务印书馆, 2005.
11. 史有为, 马学良, <说“哪儿上的b”及其“的”>, 《语言研究》第1期, 1982.
12. 史有为, <表已然义的“的b”补议>, 《语言研究》第1期, 1984.
13. 宋在睦, <认知情态和传信性>, 《韩国语学会》第44期, 2009.0.
14. 宋玉柱, <关于时间助词“的”和“来着”>, 《中国语文》第4期, 1981.0.
15. 袁毓林, <从焦点理论看句尾“的”的句法语义功能>, 《中国语文》第1期, 2003.0.
16. 朱德熙, <“的”字结构和判断句>, 《朱德熙文集2》, 商务印书馆, 1999.
17. _____,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1982.

<Abstract>

This paper mainly discusses synchronic grammaticalization of 'de' in the structure of Word 'de' and explains syntactic distinctions between each variation.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de" on synchronic plane is subdivided as two types of variation, One is Structural auxiliary word "de", The other is Evidentiality marker "de", and shows the following development process between them: Structural auxiliary word "de"> Evidentiality marker "de". The above grammaticalization has been occurred by metonymy and the subjectivisation in "NP₁+shi (是)+X+de(的)", which is the main syntactic environment. Because of the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there are some changes in syntax between each variation, such as weakening of the function of shi(是), change of negative form, some changes in the position of adverbs, extension of subject scope.

Key Words : 적(de), 공시문법화(synchronic grammaticalization), 변이(variation), 환유(metonymy), 주관화(subjectivisation)